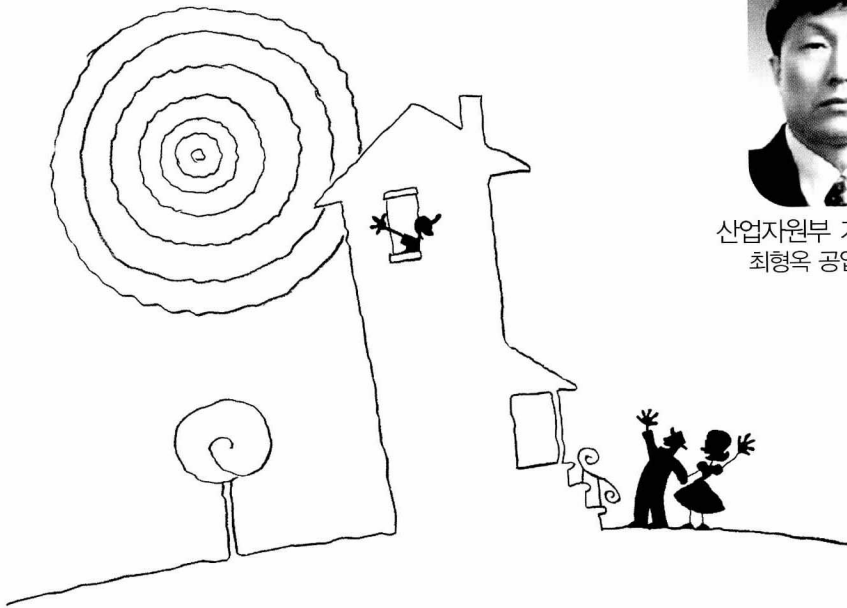


2007 전기제품안전의 날을 즈음하여

“고물선풍기는 나의 동반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형욱 공업사무관



지금은 50대 중반이지만 20대 팔팔한 총각시절,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대한민국 가전제품 유통시장 1번지, 청계천 세운상가의 명성은 그 화려함이야 인기 연예인만 못할까.

고향에 부모님에게 선물하고자 당시 청계천 세운상가 어느 점포에서 전문회사인 S사의 선풍기 한 대를 구입하여 시골집(해남)에 가져갔다. 당시 가전제품이라야 카세트 라디오가 고작이었던 시절이다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행세 하고 살아야 집에 흑백TV, 냉장고(180L) 한 대를 갖고 있었던 1970년도,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이고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하는 시절인가 보다.

얼마 전 어머님 기일(8월)에 시골집에서 옛날 서울에서 안고 왔던 고물 선풍기가 지금도 싱싱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반가웠다. 니켈크롬 도금한 안전망의 도금이 벗겨져 불품이 없지만 힘차게 돌아가는 것은 처음이나 변함이 없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리움을 안겨주는 고물 선풍기, 나에게 애뜻한

감동을 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화려한 조명아래 고급스런 가전제품이 넘치고 넘친 대형 쇼핑센터 코너를 보고, 30여년전 선풍기 사들고 땀 흘리며 멀고 먼 시골길에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2007 전기제품 안전의 날』 행사에 즈음하여 새삼 비닐로 헤드를 씌워 놓고 온 고물 선풍기가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생각이 든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용했던건만 이것이 진정 장인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낸 선풍기가 아닐까. 다른 선풍기를 써보았지만 이 고물 선풍기가 제일 시원하다고 하시던 어머니 말씀. 그 당시는 그냥 흘러버리는 하잘 것 없는 고물 선풍기였는데 지금은 에어컨보다 값지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님 또한 합죽선 내지 부채만 쓰시다가 둘째 아들이 사다준 처음 접한 문명의 이기인 선풍기를 보고 너무 감동하여 그 것만 고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오곡 풍성한 좋은 계절에 『전기제품 안전의 날』 행사는 참으로 뜻깊다 하겠다. 농부가 씨앗 뿌려 결실하듯 오늘은 환한 전기제품안전의 결실의 날이다.

제품을 만들기도 잘 만들어야 하겠지만 사용하는 자도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시골의 촌부도 선풍기 한 대를 수십 년을 사용해도 고장 없이 잘도 쓰는데, 도시인들의 삶은 너무 풍족한 생활에 아낌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나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

천천히 서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이번에 내 인생이 곧 예술이라 생각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비록 고물 선풍기에서 품어 내는 바람이지만 상대에게 시원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으련만.

2007 전기제품 안전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